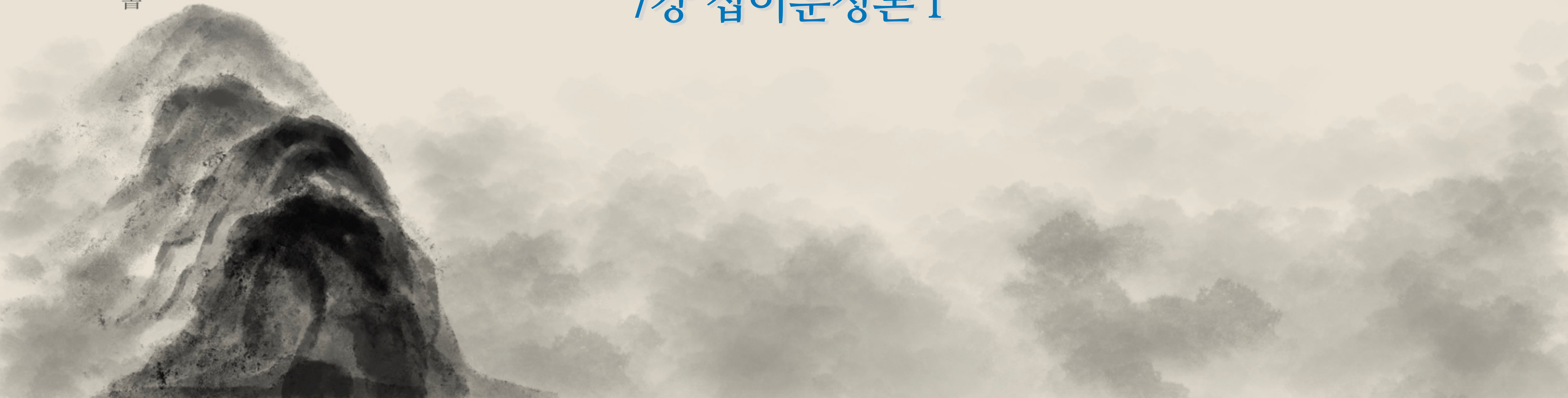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7강 십이운성론 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십이운성의 쟁점

* 화토동궁 수토동궁
- 토오행의 규정

* 양생음사 음생양사 / 음양동생동사

연해자평 VS 명리약언

삼명통회 VS 적천수천미

자평진전 VS 자평수언

- 십이운성과 대운의 양순음역(陽順陰逆)
- 지장간 속의 양간과 음간 (갑목과 을목의 미토)

〈子平眞詮〉 論陰陽生死

干動而不息, 支靜而有常.

以每干流行於十二支之月, 而生旺墓絕系焉.

천간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지지는 항상 고요하다.

천간은 십이지지의 십이월을 돌아다니며 생왕묘절의 관계를 맺는다.

陽主聚, 以進為進, 故主順.

陰主散, 以退為退, 故主逆.

此生沐浴等項, 所以有陽順陰逆之殊也.

양은 주로 뭉치니 전진 또 전진한다. 따라서 순행한다.

음은 주로 흩어지니 물러나고 또 물러난다. 따라서 역행한다.

이에 생 목욕 관대 건록의 수순을 밝음에 있어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는 차이점이 발생한다.

四時之運,功成者去,等用者進,
故每流行於十二支之月,而生旺墓絕,又有一定.
陽之所生,即陰之所死,彼此互換,自然之運也.

계절의 운행에 있어 할 일을 다한 오행은 물러나고 쓰일 오행은 진행하면서
십이지지의 월을 돌아다니는 바, 생왕묘절에 일정함이 있다.
양간이 생하는 곳에서 음간이 죽고, 음간이 생하는 곳에서 양간이 죽으니,
서로 호환되면서 자연은 운행한다.

即以甲乙論, 甲為木之陽, 天地生氣流行萬木者.
是故生於亥而死於午.

갑을목으로 논하자면
갑목은 양목으로 세상 천지의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생기다.
고로, 해월에서 생하여 오월에 죽는다.

7강 십이운성론 I

乙爲木之陰, 木之枝枝葉葉, 受天生氣,
是故生於午而死於亥.

을은 음목으로 목의 가지와 잎이다. 생기를 받는다.
고로, 오월에 생하여 해월에 죽는다.

夫木當亥月，正枝葉剝落，而內之生氣，已收藏飽足，
可以為來發洩之機，此其所以生於亥也。

해월의 목은 가지와 이파리가 벗겨져 떨어진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내면의 생기는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에 해월에 갑이 생하는 것이다.

木當午月, 正枝葉繁盛之候, 而甲何以死.

卻不是外雖繁盛, 而內之生氣發洩已盡, 此其所以死於午也.

오월의 나무는 가지와 이파리가 만개하는데 어찌 갑이 죽는가?

비록 겉은 번성하였더라도 내면의 생기는 끝을 다하였으니

이에 오월에 갑은 죽는 것이다.

乙木反是, 午月枝葉繁盛, 即為之生, 亥月枝葉剝落, 即為之死.

以質而論, 自與氣殊也.

以甲乙為例, 余可知矣.

을목은 반대다. 오월에 가지와 이파리가 번성하므로 오히려 오월에 을목은 생한다.

또한 해월에는 가지와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므로 해월의 을목은 죽는 것이다.

기의 차원과 질의 차원은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갑을목의 예로 들었다.

나머지도 알만할 것이다.

支有十二月，故每干長生至胎養，亦分十二位。
氣之由盛而衰，衰而復盛，逐節細分，遂成十二。
而長生沐浴等名，則假借形容之詞也。

지지에 열두 개의 달이 있는 바,
모든 천간은 장생에서 절태양에 이르기까지 열두 단계를 걸친다.
기의 성하고 쇠함, 그리고 쇠하고 성함을 자세히 나누니 열두 단계가 된다.
장생 목욕 등등의 이름은 각 단계를 부르기 좋게 한 것이다.

長生者, 猶人之初生也.

沐浴者, 猶人既生之後, 而沐浴以去垢;
如果核既為苗, 則前之青殼, 洗而去之矣.

장생이란 갓 태어남을 의미한다.

목욕이란 태어난 후 때를 제거하는 것이다.

씨앗이 싹이 되면서 씨앗 시절의 껍데기를 씻어내는 과정과 같다.

7강 십이운성론 I

冠帶者, 形氣漸長, 猶人之年長而冠帶也.

臨官者, 由長而壯, 猶人之可以出仕也.

관대란 점차로 성장하니 장성하여 가다 마이 입고 후까지 잡는 것과 같다.

건록이란 장성할 대로 장성하여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

7강 십이운성론 I

帝旺者, 壯盛之極, 猶人之可以輔帝而大有為也.
衰者, 盛極而衰, 物之初變也.

제왕이란 건강함이 극에 달하니, 임금을 보좌하여 대의를 펼쳐도 될 때이다.
쇠란 극에 도달한 장성함이 쇠약해지므로, 처음으로 만물이 변하기 시작한다.

病者, 衰之甚也.

死者, 氣之盡而無餘也.

墓者, 造化收藏, 猶人之埋於土者也.

병은 쇠약함이 심해지는 단계이고,
사란 기가 빠질 대로 빠진 상태이며,
묘는 기의 조화가 감춰지므로 사람으로 생각하면 무덤에 가는 단계이다.

絶者, 前之氣已絶, 後之氣將續也.

胎者, 後之氣續而結聚成胎也.

養者, 如人養母腹也. 自是而後, 長生迴圈無端矣.

절이란 이전의 기가 끊어지고, 후의 기가 장차 이어짐을 말한다.
태란 이어지는 새로운 기운이 결합하고 뭉쳐 배태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양이란 어머니의 뱃속에 배양되는 상태이며,
다시 장생의 단계로 넘어가 돌고 도니 이러한 이치는 어긋남이 없다.

人之日主, 不必生逢祿旺, 即月令休囚,
而年日時中, 得長祿旺, 便不為弱, 就使逢庫, 亦為有根.

일주가 반드시 월령으로부터 장생이나 건록 제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월령에서 휴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지에서 장생이나 건록 제왕을 얻으면
약하지 않고, 창고를 얻어도 통근한 것으로 본다.

時產謂投庫而必沖者，俗書之謬也，
但陽長生有力，而陰長生不甚有力，然亦不弱。

창고를 얻으면 반드시 형충으로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속서에나 나오는 허접한 소리다.
단지 양간의 장생은 유력하지만 음간의 장생은 그렇게 유력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는 말도 아니다.

若是逢庫, 則陽為有根, 而陰為無用.

蓋陽大陰小, 陽得兼陰, 陰不能兼陽, 自然之理也.

창고를 만났어도 양간은 통근하지만 음간은 무용하다.

예컨데, 갑목은 무덤이 되는 미토에 통근하지만

을목은 무덤이 되는 술토에 통근하지 못한다.

양은 크고 음은 적으니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으나 음은 양을 겸하지 못한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 滴天髓闡微 〉

陰生陽死, 陽順陰逆, 此理出於洛書, 五行流行之用,
固信有之, 然甲木死午, 午爲洩氣之地, 理固然也.

음양 중 음이 생(生)하는 곳에서 양은 사(死)하고,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는 이론은 낙서(洛書)로 부터 나왔다.

구궁 중 감일궁에서 음이 끝나면서 일양(一陽)이 시작되고,
이 구궁에서 양이 끝나면서 일음(一陰)이 시작된다. 곧 양생음사(陽生陰死)의 원리이다.

또한 양은 감일궁에서 출발하여 구궁을 순행하여 이구궁에 도달하며,
음은 이구궁에서 출발하여 구궁을 역행하여 감일궁에 도달한다. 곧 양순음역(陽順陰逆)의 원리이다.

이같이 오행이 유행하는 작용은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甲木이 午에서 사한다는 것은 木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만 하다.

而乙木死亥，亥中有壬水，乃其嫡母，何爲死哉。

凡此皆詳其干支輕重之機，母子相依之勢，陰陽消息之理，而論吉凶可也。

若專執生死敗絕之說，推斷多誤矣。

그러나 乙木이 亥에서 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亥의 지장간에 친어머니인 壬水가 있는데 어찌 죽는다는 것인가.

대체로 팔자를 볼 때 간지의 경중과 기미를 상세히 살펴야 하며,

상생하는 관계인 모자의 서로 의지하는 형세나, 음양이 변하는 이치를 살펴 길흉을 논하는 게 옳다.

만약 양순음역설에 따라 생사패절설(生死敗絕說)만 고집하다면 명을 논하는데 잘못이 많을 것이다.

7강 십이운성론 I

다음 사주들은 양순음역(陽順陰逆)과 관련하여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 실린 사주들이다.

時 日 月 年 乾命

丙 乙 己 丙

子 亥 亥 子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大運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乙木 일간에 亥子 수국이 지지에 깔려 있고, 火土 식재가 허약하니 신왕하다.
신왕한 중 중년 운도 水木 인비로 흘러 돈을 모을 수 없었고 뜻을 펼 수 없었다.

만약 십이운성의 양순음역(陽順陰逆) 기준을 적용하여 乙木 일간이 년.

시의 子水가 병지(病地)이고, 월.일의 亥水가 사지(死地)로 본다면
乙木 일간은 아주 허약하여 水木 인비운에 큰 발전을 이뤘을 것이다.

〈命理約言〉 十幹生旺墓等位論

舊書從各支起長生, 沐浴, 冠帶, 臨官, 帝旺, 衰, 病, 死, 墓, 絕, 胎, 養十二位有陽生陰死, 陰生陽死之異焉.

옛책에는 천간이 각 지지를 따라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으로 기운이 흐르고,
12단계에는 양생음사 혹은 음생양사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7강 십이운성론 I

夫五陽育于生方, 盛于本方, 斃于泄方, 盡于克方, 於理為順.
若五陰生於泄方, 死于生方, 於理未通.

다섯 양간은 생하는 방향에서 길러지고, 자신의 방향에서 성숙하며,
설기하는 방향에서 죽어가고, 극하는 방향에서 기운을 다하니 그 이치가 그럴 듯 하다.
다섯 음간은 설기하는 방향에서 성장하고, 생하는 방향에서 죽으니
그 이치가 알쏭달쏭하다.

即曲為之說, 而子午之地, 終無產木產金之道.
寅亥之地, 終無滅火滅水之道.

이것은 왜곡된 학설로

도대체가 자수와 오회라는 지지에서 목이 생하고 금이 생하는 이치가 없다.
인목과 해수라는 지지에서 도저히 화가 죽거나 수가 죽는 이치가 없다.

諸舊書命格, 丁遇酉以財論,
乙遇午, 己遇酉, 辛遇子, 癸遇卯, 以食神論, 具不以生論.

어떤 고서를 보더라도 丁이 酉를 만나면 재성으로 논했다.
乙이 午를 만나거나, 己가 酉를 만나거나, 辛이 子를 만나거나,
癸가 卯를 만나면 식신이라 하였지 생지를 갖췄다고 하지 않았다.

乙遇亥, 丁遇寅, 癸遇申, 以正印論.

己遇寅藏之丙, 辛遇巳藏之戊, 亦以正印論, 具不以死論.

乙이 亥를 만나거나, 丁이 寅을 만나거나, 癸가 申을 만나면 정인이라 하였다.

己가 寅의 지장간 丙을 만나거나, 辛이 巳의 지장간 戊를 만나면

정인이라 하였지 사지를 만났다고 하지 않았다.

其論墓則木必於未, 火必于戌, 金必於丑, 水土必於辰.
從無以戌為乙墓, 丑為丁巳墓, 辰為辛墓, 未為癸墓者.

무덤을 논할 때 목은 미토가 무덤이 되고,
화는 술토, 금은 축토, 수와 토는 진토가 된다 하였다.
진실로, 술토가 을목의 무덤이 된다거나, 축토가 정화와 기토의 무덤이 된다거나,
진토가 신금, 미토가 계수의 무덤이 된다고 하지 않았다.

則陰陽同生同死為是.

考廣錄雲, 甲乙一木, 而分陰陽,

非可以以死木活木岐而二之, 既為一木, 同生同死.

즉, 음양간은 동생동사同生同死가 맞다.

광록廣錄에서는 말하기를 갑과 을은 하나의 목이고 음양으로 갈라진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사목과 활목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으니 하나의 목으로 보고 동생동사同生同死 한다고 하였다.

故古人只有四長生, 此說可為確據矣.
至其中命名取義, 亦多未通.

또한 옛날부터 장생은 네 개뿐이라 하였으니
동생동사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겠다.
심지어 이름을 명명하여 취해오는 데에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如長生之後，繼以沐浴，謂之敗地，
若嬰兒初生，沐浴氣弱，不能勝而敗也。

장생 다음에 목욕이 오는데 패敗지라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 목욕에 이르면
기운이 약하여 이겨내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夫沐浴西事, 既不足列於生旺之屬, 且世無因浴至敗壞者.
弱以為淫欲之煞, 豈裸形而浴者, 皆宣淫乎.

목욕은 장생이나 제왕의 예에 속하기는 부족하지만,
세상에나 욕지라 하여 망하게 되지도 않는다.
음란한 살이라고도 하지만 옷을 벗고 목욕하는 형상이라 하여
어찌 모두 음란하다 하겠는가?

況自生起旺, 一路發榮滋長,
方生何以忽敗, 既敗何以能扶旺也.

심지어 장생에서 제왕으로 가는 길은 발전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
목욕이란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니 어떻게 갑자기 패망할 것이며,
패망하는 기운이 어떻게 성장을 도울 수 있겠는가.

冠帶雖成立之義, 亦為不倫.
臨官之官, 帝旺之帝, 尤屬無謂.

관대란 성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바로 제복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며,
임관이 있다 하여 바로 임관하는 것도 아니며, 제왕이라 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가?

至於土之生旺墓，有從寅起者，有從申起者，
夫土位乎中央，貫乎八方，旺乎四季，原不必與四行同例。

토의 12운성에 대해서는 인목에서 생한다고 하기도 하고, 신금에서 생한다고도 한다.
토는 중앙이지만, 사방에 흩어져 있고, 진술축미월에 왕성하므로
나머지 사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必不得已, 則起寅近是.

蓋申酉皆我生, 既泄我氣,

則我克者尚為一家, 生我之火, 我生之金, 安在非一家乎.

부득이 나눠보자면, 인목에서 생하는 것이 진실에 근접하다 할 수 있다.

신금과 유금은 토가 생하는 것이니 기운을 키우기는 커녕 설기한다.

또한 토가 극하는 수와 운동을 같이 한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생해주는 화 하고도 운동을 같이 해야 하고,

설기하는 금 하고도 운동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若起寅則母生具生, 母死具死, 其理差長.

然自生寅至旺午, 可以從母.

至未戌丑皆其本氣, 又難分衰墓養矣.

인목에서 장생한다고 하면 토의 어머니인 화가 생하는 곳에서 함께 생하고,

화가 죽는 곳에서 함께 죽으니 그 이치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 듯하다.

자연히 인목에서 장생하여 오화에서 왕성할 것이니 여기까진 화를 따라간다 하겠지만
미토 술토 축토에서 모두 토의 본기를 만나니 쇠지와 묘지 양지로 나누기가 곤란하다.

則論土之法, 只當以巳午為生, 寅卯為克, 申酉為泄,
亥子為財, 四季為旺, 更自合理.
何必拘拘數十二位乎.

토의 생왕법은 사오화에서 생하고, 인묘목은 극하고, 신유금은 설하고,
해자수는 재성이 되며, 진술축미에서 왕성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필 구구절절 십이운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或曰臨官即祿也, 帝旺即刃也, 祿刃以陽順陰逆取,
則生死亦應以陽順陰逆取矣.

혹자는 말하길, 임관은 건록이고 제왕은 양인이라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이치에서 건록과 양인을 찾으니,
12운성에도 이러한 이치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是大不然, 衰病官旺者, 十幹曆十二支, 盛衰之序也.
失時退氣則為衰病, 當時得氣則為官旺也.

대단한 오해다.

쇠 병 록 왕이라는 것은 십간이 십이지를 떠나 성쇠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계절을 잃거나 물러나는 기운이 쇠나 병이고,
계절을 얻거나 전진하는 기운은 록 왕이다.

祿刃者十幹遇十二支, 取用之法也.

異類有生克, 則取財官, 同類無生克, 則取祿刃也.

昭然兩義, 何容籍口乎.

건록 양인은 십간이 십이지를 만나면서 적용하게 되는 법수인데,
다른 것에는 생극이 있어 재관으로 취하지만, 동일한 오행은 생극이 없으므로

건록이나 양인으로 취하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각각의 이치가 다르니, 어찌 입을 함부로 놀리는가?